3. 집권 초기의 율곡 관련 기록

<조선왕조실록>은 임금에 관한 기록이고 조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므로『숙종실록』에 기록된 율곡 기록은 당연히 정치적인 것이고 또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율곡과 같이 조정안에서 그리고 선비사회에서 학맥을 형성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율곡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아마도 <조선왕조실록>가운데에서 언급 빈도로 따지면 조선의 지식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을 것이다.
이는 율곡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며, 또 율곡 사후 후대의 관리들이 율곡의 지명도를 이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것은 율곡을 끌어들여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임금들도 마찬가지였다. 밑의 신하들이 율곡을 자주 언급하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율곡 자신이 생전에 고위 관리였으며 율곡이 남긴 저술이며 사상이 국가의 제도나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고 또 임금의 행동이나 마음가짐과 관련된 수양의 지침서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율곡은 빈번하게 조정 관료들의 대화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이 율곡 철학이나 율곡 사상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심층을 살펴보고자 할 때 율곡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숙종이 즉위한 직후 남인이 집권하던 시기 즉, 숙종 즉위년(1674년)부터 숙종 5년(1679년)까지『숙종실록』에 기록된 율곡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숙종실록』1권, 숙종 즉위년 12월 30일 기사(유세철의 과거 응시 금지에 대해 벌을 풀어주도록 명하다.)
2)『숙종실록』3권, 숙종 1년 4월 10일 기사(경기 진사 성호석이 송시열의 석방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3)『숙종실록』3권, 숙종 1년 4월 25일 기사(이옥을 헌납으로, 남천택을 장령으로 윤휴를 우윤으로 제수하다.)
4)『숙종실록』4권, 숙종 1년 6월 2일 기사(좌의정 김수항이 면직하여 주기를 빌므로 허락하다.)
5)『숙종실록』4권, 숙종 1년 7월 9일 기사(대신들을 소집하여 한재를 물리칠 방도를 묻자 복선군 형제 석방 등을 건의하다.)
6)『숙종실록』4권, 숙종 1년 9월 10일 기사(홍유부를 동몽 교관으로 삼다.)
7)『숙종실록』5권, 숙종 2년 2월 8일 기사(서얼 허통과 백관의 반록 및 김성일의 증시 문제를 논의하다.)
8)『숙종실록』6권, 숙종 3년 5월 14일 기사(참찬관 유명천이 이이의 이기설을 잘못 말하다.)
9)『숙종실록』7권, 숙종 4년 8월 13일 기사(대신과 비변사의 제신을 불러들여 만나 보다.
10)『숙종실록』8권, 숙종 5년 3월 12일 기사(생원 송상민이 스승 송시열은 간신들의 모함을 받고 있다는 책자를 만들어 올리다.)

율곡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율곡을 비판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 1), 6)
(2) 율곡을 존경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 2), 3), 4), 10)
(3) 율곡의 정책이나 사상과 관련된 기록 : 5), 7), 8), 9)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각각의 율곡 관련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율곡을 비판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1) 번과 6) 번 기록은 율곡을 비판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으로 그들을 관대하게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숙종 초기에 서인들은 축출당하고 남인 관료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율곡을 비판하다 억울하게 법적인 처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기록이다.

1) 번 기사는 성균관에서 율곡과 우계 성혼을 '추하다고 헐뜯은 김강(金鋼)과 남중유(南重維)'에 대한 처벌을 풀어줄 것을 건의한 기록이다. 김강은 현종 4년(1663년)에 상소문을 올려 "이이(李珥)가 일찍 집안에서 불행을 당하여 선문(禪門)에 종사했다는 것은, 이이가 상소하여 스스로 그 사실을 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고(故) 상신(相臣) 이항복(李恒福)이 지은 그의 비문에도 '19세에 출가(出家)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율곡의 불문 종사를 들어 문묘 종사를 반대한 적이 있었다. 남중유도 같은 해 율곡과 우계 성혼의 '학문과 도덕이 조잡하고 공명하지 못하다.'고 평하고, 문묘에 종사하자는 청에 반대하는 소를 올려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1년간 과거 응시를 정지당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두 사람에 대해서 숙종은 "국시(國是)가 이미 정해지고 의례(議禮)도 이미 밝혀졌다. (중략) 김강·남중유 등도 또한 배향하는 일을 가지고 서로 다툰 것인데"라고 하면서 벌을 풀어주라고 하명을 하였다.

6) 번 기사도 율곡과 우계에 대해 투서하여 성균관에서 처벌을 받은 홍유부(洪有阜)의 벌을 풀어주라는 내용이다. 홍유부는 1650년(효종 1년)에 율곡 등에 대해서 헐뜯는 내용을 주위에 알리고 다녔는데, 그 말들이 지나치게 도리에 어긋났다고 한다. 이 일로 그는 일정 기간 동안 과거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정거(停擧, 과거 응시 금지) 하는 벌과 부황(付黃)의 처벌을 받았다. 부황의 처벌을 받으면 차후에 임금의 결재(決裁)를 받아야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남인의 영수 윤휴는 홍유구가 억울하게 이러한 벌을 받고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벌을 받고 있다고 임금에게 호소하고 그에 대해 벌을 풀어주기를 간청하였다. 숙종은 이에 그 죄를 풀어주고 그를 참봉에 임명하였다가 나중에 동몽교관(童蒙敎官)으로 삼았다.

이때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위의 1) 번, 2) 번 기사에 나온 김강·남중유 그리고 홍유부 등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만약 서인이 집권했더라면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인들이 보기에 이들의 율곡 비판은 지나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숙종 초기에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된 계기는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과 관련된다. 갑인예송은 현종 15년, 즉 1674년에 현종의 어머니 인선왕후(효종의 부인)가 사망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현종의 할머니이자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가 아직 살아 있어서 죽은 며느리를 위해 상복을 입게 되었다. 인선왕후가 맏며느리라면 1년, 그렇지 않다면 9개월을 입는 것이 관례였다. 송시열과 서인은 9개월의 상복을 입을 것을 건의하여 그렇게 통과시켰다. 그러나 나중에 영남의 유생 도신징(都愼徵)과 남인 측이 효종이 국왕에 등극한 이상 인선왕후는 맏며느리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서 1년 상복을 주장하여 현종이 나중에 1년 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서인의 9개월 설은 왕통의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고 왕가의 예절도 사대부의 예절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관점이었다. 반면에 남인의 1년 설은 왕가의 예절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차남이라도 일단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 장남과 같은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왕통의 특별함을 인정해주는 설이었다. 현종은 왕통의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는 서인 관료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다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현종이 사망한 뒤 임금에 오른 숙종은 예송을 잘못 이끈 죄를 물어 장기간 집권을 했던 서인들과 송시열을 정권에서 몰아냈다. 이것이 숙종 초년에 남인들이 득세한 이유이다.

(2) 율곡을 존경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앞에 제시한『숙종실록』기사 2) 번, 3) 번, 4) 번, 그리고 10) 번의 기록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인 측 대표로 예송의 책임을 지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송시열 관련 기록 2) 번, 10) 번과 서인 측 관료이지만 조정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김수항의 사직 관련 기록 4) 번이다. 이것들은 모두 서인과 관련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3) 번은 남인 영수 윤휴 관련 기록이다. 이와 같은 순서로 기록의 내용을 살펴본다.

2) 번 기사에서는 경기도 진사 성호석이 송시열의 석방을 청하는 상소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경기도 진사 성호석(成虎錫) 등이 상소문을 올려 송시열의 석방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성호석의 증조부 성성남(成成瀗)은 젊어서 이이와 성혼의 문하에 유학하며 선(善)을 좋아하고 배우기를 기뻐하였기에 친구들에게 존중을 받았다. 동인과 서인이란 말은 선조 때에 시작되었는데, 동인이 다시 남인(南人)과 대북(大北) 소북(小北)으로 나누어져서 교대로 들어와 정권을 담당하였다. 인조(仁祖) 계해년 뒤에 서인이 비로소 요직에 있으며 남인과 북인의 당을 모두 끌어들여 함께 청관 요직(淸官要職)을 차지하였으나, 남인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주관하지 못함을 한으로 여겨 매양 기회를 엿보았다.”

여기에서 율곡에 대한 언급은 성호석의 증조할아버지 성성남이 율곡과 우계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대목에 보인다. 이 기사는 성호석의 상소문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인지, 사관이 상소문을 읽고 자신의 입장에서 재정리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영조 시기 초기에 서인(노론)이 집권을 하였기 때문에 즉 사관 역시 서인의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남인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들어 있다.

참고로 이 기록에 나오는 숙종 초년 송시열의 상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남인들이 모여서 송시열의 죄명 6, 7가지를 의논할 적에 먼저 예제를 그르쳤다고 말하여 송시열의 관직을 파면하여 박탈하도록 하고, 점차로 형률(刑律)을 더 주어서 장차 극형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였다. 김우명이 처음에 이미 그들 남인과 의논을 같이 한 처지이므로, 송시열의 죄를 풀어주려고 했으나, 그대로 되지 않아서 송시열이 먼 지방으로 귀양 간 것은 1월 12일이었다. (중략)
송시열의 문하생 윤명우(尹明遇) 등 18인과 이담(李檈) 등 1백4인과 유학(幼學) 어수만(漁壽萬)과 진사(進士) 이진식(李震栻) 등 수십 인과 정상룡(鄭祥龍) 등 80여 인이 앞뒤로 대궐문에서 호소하여, 혹은 들어가고 혹은 물러서며 혹은 멀리 귀양 가고 혹은 과거 응시 금지를 당하였다. 그 밖에도 조정에서 벼슬하는 이들까지 다투어 말하며 신원(伸冤)하여 변명하는 자들이 서로 잇달아 죄를 받았는데도 이를 피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남인들은 이러한 자들을 지목하여 나라를 원망하고 당파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라 하니, 임금이 그 말을 더욱 믿어 송시열을 권모술수가 많은 이로 여기어 그를 음흉하고 참독(慘毒, 참혹하고 지독)하다는 것으로 배척하였다."

숙종 초년은 이렇게 송시열이 배척당하고 관련 서인들이 조정에서 쫓겨나 남인 관료들이 조정을 장악한 상태였으나 『숙종실록』을 편찬할 당시는 서인 측이 권력을 장악하고 편찬도 서인 측(노론)이 주동을 하였으므로 내용은 남인을 비판한 것이 되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숙종 초기에 숙종은 남인의 말을 들어 송시열을 음흉하고 참혹하며 지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들은 율곡의 문묘 종사에 대해서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10) 번 '생원 송상민이 스승 송시열은 간신들의 모함을 받고 있다는 책자를 만들어 올리다.'라는 기사는 송상민에 대해서 "생원 송상민(宋尙敏)은 송시열과 송준길의 제자로, 글과 행동과 학식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인데, 그의 스승 송시열이 뭇 간신들의 모함을 입고 있는데도 임금이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기해년(1659년 현종 즉위년) 이후 예설을 논하게 된 시말(始末, 처음과 끝)과 여러 차례 죄를 입은 사건들을 낱낱이 열거하여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 바치니, 수만 글자에 달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송상민의 상소문에 대해 남인 관료 승지 박신규(朴信圭)는 임금에게 상소문의 내용이 지극히 흉악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임금은 이에 대해 "생원 송상민을 병조에 구류(拘留)하고, 그의 상소문은 거두어 들이라."는 명을 내렸다.
송상민이 올린 상소문에 언급된 율곡은 다음과 같다.

"선묘조(宣廟朝, 선조 시대 즉 선조 16년, 1583년)에 이르러, 선정신(先正臣) 이이와 성혼은 도학과 덕망이 당시의 으뜸이었으나 이때 동인(東人)은 심의겸(沈義謙)의 문객과 친한 벗을 이용하여 이이와 성혼의 죄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이와 성혼을 구제하는 자는 모두 배척되고 이이와 성혼을 헐뜯는 자는 좋은 벼슬을 얻었으므로, 이이와 성혼은 실로 동인의 출세를 위한 기막힌 보배였습니다."

선조시대 붕당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율곡을 언급하였다. 참고로 송상민의 상소문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논의하는 자들은 또 송시열에 관해 의논을 거두는 가운데서 이른바 '효종은 인조의 서자(庶子)로 보아도 상관이 없다.'는 설을 가지고 죄안(罪案)으로 삼았으나 청컨대, 신은 이것을 논변하겠습니다. (중략) 이것들을 근거한다면 이른바 서자란 대개 중자(衆子)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이미 서(庶)라고 말했고 또 왕이라고 말했으니, 어찌 '서(庶) 자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서(庶)라는 호칭이 제왕의 몸에 무슨 해가 된단 말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저들의 허구(虛構)입니다."

송상민은 이렇게, 남인이 송시열을 공격할 때, 송시열이 임금을 적처 소생이 아니라고 하거나 효종을 인조의 서자로 보아도 상관이 없다는 발언을 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 왕통을 능멸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남인 관료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비판했다.

"권대운(權大運, 당시의 영의정)은 윤휴와 허목은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 권대운의 독은 유휴이나 허목보다 심합니다. 밖으로 온건론 같지만 사실은 칼을 갈며, 처음엔 물러서는 것 같지만 끝내는 칼자루를 잡고 있습니다. (중략) 그 나머지 홍우원·이무·이원정·이우정·오정창·이옥·정지호·권환·김총·심단의 무리들과 그 밖에 조정에 충만하여 전하의 귀를 현혹시키는 자들은 모두 윤휴의 당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 그 수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소문을 읽고 조정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남인들과 그들을 믿고 지지하던 숙종은 송상민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었다. 임금은 그를 병조에 구류(拘留)시켰다. 구류는 징역이나 금고보다는 가벼운 징벌에 해당한다.

4) 번 기사는 서인 관료 김수항의 사직서 관련 내용이다. 이때 좌의정 김수항은 허적(許積)과 권대운(權大運) 등 남인들이 조정을 장악해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보고서를 올려 병을 이유로 면직(免職)을 요청하였다. 숙종은 그가 정말로 병이 있어서 면직을 요청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홍문관 관리를 불렀다. 이에 승지 조사기(趙嗣基)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먼저 임금에게 "소대(召對, 임금과의 면담 혹은 임금의 강론)에서는 반드시 『강목(綱目)』만을 강론할 것이 아니고 성학(聖學)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옥당(玉堂, 홍문관)으로 하여금 정자와 주자 및 우리나라 근대의 현신인 이언적·이황·이이·유성룡·정경세 등이 학문을 논의한 문장을 발췌하여 책 한 권으로 만들어 들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건의하여 임금의 허락을 받았다.

임금은 이 자리에서 조사기에게 이렇게 물었다.

"좌의정 김수항의 병이란 실지로 병이 있는 것인가?"

조사기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관은 이렇게 기록했다.

“나라의 제도에 대신은 높이 예우하여 일찍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고, 임금도 또한 그렇게 하였었는데, 지금 이름을 부른 것은 그를 미워하여 장차는 물리쳐 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숙종은 김수항의 사직 요청을 받아들이고 조사기에게 그런 지시를 내리도록 하였다. 사관은 김수항이 사직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적었다.

> “김수항은 왕실이 외롭고 약하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이 임시변통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억지로 힘써서 다시 나왔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임금의 뜻을 크게 거슬렸고, 허적과 권대운의 사이에 개입되어 스스로 용신(容身) 할 수가 없어서 공무를 집행한 지 겨우 20여일 만에 곧바로 다시 물러 나왔다. 여러 소인의 무리들이 침노하고 능멸(凌蔑) 하면서 그가 물러가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였으며, 윤휴(尹鑴)와 허목(許穆) 등도 그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뺏으려 하였다.”

윤휴와 허목은 남인 대표로 송시열·김수항 등 서인들과 예송논쟁에서 다퉜다. 숙종 초기에는 이들이 논쟁에서 이기고 정권을 잡아 득세하였기 때문에 김수항은 업무 수행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번에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일로 숙종과 면담을 하게 된 조사기(1617년~1694년)는 관직생활이 순탄치 않은 사람이었다. 조선시대의 공무원이 얼마나 위험한 직업인지 몸소 보여준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31세 때(1648년, 인조 26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예문관검열에 임명되어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추관 기사관이 되어 자기 아버지 조빈과 함께『인조실록』편찬에도 참여하였다. 하지만 효종 3년(1652년)에 사관으로 시정기(時政記)의 편수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여 옥살이를 하였다.

3년 뒤 경기 도사로 있을 때는 무인의 말을 탈취하여 사간원의 탄핵을 받았다. 또 개성경력(開城經歷) 재직 중(1661년, 현종 2)에는 노비를 불법으로 감금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죄로 사헌부로부터 파직의 탄핵을 받기도 했다. 11년 뒤(1672년, 현종 13년) 제용감정(濟用監正)으로 있을 때는 율곡과 우계의 문묘 종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상소를 올린 것이 물의를 일으켜, 3년의 노역형에 처하여졌다가 파직 당했다.

1678년(숙종 4년)에는 오위의 부호 군에 임명되었으나 송시열을 공격하여 물의를 일으켜 1680년에 귀양을 가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다. 1694년(숙종 20년)에는 명성왕후를 근거 없이 모욕하였다고 하여 12차에 걸친 엄한 신문을 받고 결국 참수형에 처해지고 가산을 몰수당했다. 이렇게 46년간의 관직생활을 하면서 옥살이,(·)탄핵,(·)유배,(·)참수형까지 온갖 종류의 처벌을 다 받았다. 그 자신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참수형을 받게 된 이유는 명성왕후가 궁녀들의 불륜 소문을 적극 나서서 무마시킨 잘못을 지적한 것인데 그로서는 몹시 억울한 일이었다. 숙종 시대 목숨을 건 당파싸움이 그의 관직생활을 괴롭힌 일등공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번 기사는 남인 영수 윤휴(尹鑴)와 관련된 기록이다. 이때 윤휴는 우윤으로 임명되었다. 율곡을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히 윤휴를 승진시켜 우윤(右尹)으로 삼았다. 윤휴의 아버지 윤효전(尹孝全)은 광해군 때에 위훈(僞勳)에 기록되어 벼슬이 대사헌이었고 대북파(大北派)가 되었었다. 윤휴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고, 병자년(1636년, 인조 14년) 과 정축년(1637년, 인조 15년)의 난을 당한 뒤에 호서에 거주하면서 송시열·송준길·권시·이유태·윤선거 등과 교류하였으며, 이이와 성혼을 존경하였다. 송시열 등은 그의 재주와 학문을 사랑하여 나이를 잊고서 사귀었다. 윤선거가 윤휴를 더욱 존중하여 경국제세(經國濟世, 나라를 경영하고 세상을 다스림)할 인재로 인정하였다. 그 뒤에 민정중(閔鼎重)이 효종 때 천거하자 친히 가서 만나보겠노라고 하시기에 이르렀고, 송시열 등은 그를 추천하여 지평(持平)을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스스로 포의(布衣)라 일컫고는 끝내 나오지 아니하였다. 이에 그의 명성이 더욱 크게 떨치어서 먼 데서나 가까운 데서나 모두 윤포의(尹布衣)로 일컬으면서 그 얼굴을 서로 알기를 원하였다."

윤휴가 이이와 성혼을 존경하였다는 기록이다. 송시열은 처음에 이런 윤휴를 존중하고 가깝게 사귀었으나 나중에 윤휴가 주자의 학설을 무시하고 주자와 다른『중용』해석을 시도한 것에 실망하고 윤휴를 사문난적(斯文亂賊), 즉 이단으로 비판하였다. 예송논쟁에서도 윤휴와 송시열은 서로 다른 설을 제시함으로써 완전히 대립하게 되었다.

(3) 율곡의 정책이나 사상과 관련된 기록

앞에 소개한『숙종실록』초기의 10개 기사 가운데 5) 번, 7) 번, 8) 번, 9) 번이 율곡의 정책이나 사상을 회고하는 기록이다. 여기서 5)는 서얼·차별·해지·건의, 7)은 서얼 문제 8)은 율곡의 이기설 문제, 9)는 성균관 등 관청에서 자리 앉는 순서에 대한 것이다.

5) 번 기사는 숙종 1년(1675년) 7월 9일 자 기록으로 '대신들을 소집하여 한재를 물리칠 방도를 묻자 복선군 형제 석방 등을 건의하다.'는 내용 중에 율곡이 서얼 차별 해제를 건의한 기록이 나온다. 1583년(선조 16년)에 북방에 이탕개(尼湯介)의 난이 일어났다. 여진족 추장 이탕개를 중심으로 함경도 회령 지방의 여진족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병조 판서였던 율곡이 서얼로 하여금 북방 지역에 곡물을 납부하게 하여 그 대가로 과거시험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해 허락을 받았다.
그 덕분에 숙종 초년에 영의정을 하고 있었던 허적(許積)은 애첩에게서 얻은 서자 허견(許堅)을 남의 글로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다. 허적은 사사건건 율곡을 공격하였으나 율곡의 덕을 본 것이다. 그러나 허적의 아들은 "사람됨이 패악하고 허망한데다가 세력을 빙자하여 교만하고 사치스러워서, 조그만 벼슬은 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허적은 그를 사랑하여 현관(顯官, 문관과 무관의 정식 관료)으로 등용하고 싶어 했다."(『숙종실록』 숙종 1년 7월 9일 자 기록) 그러나 당시 중요한 관직(淸要職)에 서자의 등용은 허락되지 않았다. 허견은 나중

에 모반을 꾸몄다는 밀고를 받고 군기시(軍器寺)가 있던 오늘날의 서울시청 자리 앞 큰길에서 능지처참을 당했다. 이때 그 아버지 허적도 복선군·복창군·복평군 등 왕실의 종친과 기타 남인 실권자 등이 죽음을 당하였다. 이 사건으로 숙종 초기 남인의 권력은 서인으로 넘어갔다. 소위 1680년, 숙종 6년의 경신환국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 일어난 일이(었)였다.

7) 번 기사는 숙종 2년 2월 8일의 기록으로 '서얼 허통과 백관의 반록 및 김성일의 증시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도 율곡의 서얼 관련 이야기가 언급된다. 이날 경연의 자리에 먼저 윤휴가 이렇게 말했다.

"서얼(庶孽)은 (국가에) 돈을 바친 뒤에 허통(許通, 과거 응시나 관직의 진출 및 승진 등에 적용된 제한을 풀어주는 것)하는 것이 예(例)입니다. 이번 무과에는 허통하지 아니한 자가 속여서 참여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조사해서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참작해서 국가에 바칠 돈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때 윤휴는 영향력이 매우 큰 남인의 영수였다. 송시열과 예송논쟁에서 승리하여 왕통의 권위를 바로잡는데 큰 공을 세웠다. 윤휴의 말은 임금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윤휴에 이어서 영의정 허적이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얼을 막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릇된 인습입니다. 선조 때의 명신(名臣) 이이가 서얼을 벼슬길에 통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풍속을 갑자기 바꾸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대가로 돈을 받고 허통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허통하는 이 일은 지금 갑자기 의논하기 어려우나, (서얼 여부를) 속여서 무과에 참여한 자에게는 제값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윤휴와 허적의 제안을 듣고 숙종 임금은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허적은 아들 허견이 바로 서얼 신분이었기 때문에 서얼의 제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많았다.
앞서 숙종 1년(1675년) 7월 9일 자 기록에 이러한 대화가 나온다.

홍우원: 옛사람이 이르기를 '어진이를 세우는 데는 일정한 방향이 없다.' 하였습니다. 서얼엔들 어찌 인재가 없겠습니까? 김수홍의 상소가 옳습니다.
이무: 국초에는 서얼로서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까지 된 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락 연간(永樂年間, 1403년~1424년)에 막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반드시 재주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윤휴: 유자광(柳子光)이 서얼로 사화(史禍)를 얽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뒤부터 막았습니다. 이제 만일 벼슬길을 터주도록 허락하시면, 오랫동안 막혔던 기운이 펴질 것입니다. 서얼은 한편으로는 사대부여서 하천(下賤,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양민 출신의 첩에서 난 자는 융통하여 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록을 남긴 사관은 "이무가 또 소매에서 한

장의 종이를 내어 올렸다. 그 가운데의 한 조목이 곧 서얼을 통용하자는 일이었다. …… 윤휴·이무·홍우원·김수홍이 허적의 환심을 사려고 이렇게 힘써 의논을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임금을 면담하기 전에 이들은 서얼의 융통과 관련하여 미리 의견을 맞춘 것이다. 물론 이는 사관의 말대로 서얼 아들을 둔 허견을 염두에 두고 영의정 허적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가 강했다.

8) 번 기사는 숙종 3년 5월 14일의 기록으로 참찬관 유명천이 율곡의 이기설을 잘못 말한 일에 대한 것이다. 이날 강연에서 유명천(柳命天)은 퇴계 이황과 율곡의 이기설(理氣說)에 관하여 논했다.

"이황은 '기가 발하여 리가 따르는 것이다(氣發而理隨).'고 했습니다. 이는 맹자(孟子)의 말과 서로 부합됩니다. 이이는 '이와 기가 함께 발한다(理氣互發).'고 했는데, 이는 고자(告子)의 말에 가까운 것입니다."

유명천은 1651년(효종 2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인물이다. 1672년(현종 13년) 별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으며 정언·지평 등을 역임하였고, 1675년(숙종 1년)에는 이조좌랑이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대사간·대사성을 지냈으니 성리학에 관한 지식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기론을 임금에게 설명하면서 퇴계의 것과 율곡의 것을 바꿔서 설명했다.

이에 사관은 이렇게 평을 하였다.

"대개 이황은 일찍이 '리가 발하니 기가 따르게 되고, 기가 발하니 이가 타는 것이라.'는 말을 주장했고, 이이는 일찍이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게 하는 것은 리이다. 리와 기가 어찌 함께 발하는가?'라고 하여 이이는 성혼과 논변하기를 거의 수천 마디의 말을 했었다. 지금 유명천이 단지 이이를 공격하기에만 급급하여, 도리어 이황의 말을 이이의 말로 여기며 그만 고자의 말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여, 자신이 이황을 모욕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으니, 그의 거칠고 두서없는 생각을 드러낸 상황이 진실로 우습기만 하였다."

남인의 입장에서 율곡의 이기론을 비판하고 이황의 이기론을 감싸려고 한 것이 임금에게 그만 거꾸로 소개한 것이다. 맹자의 성선설과 대립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선도 없고 악도 없다,' 혹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교정하여 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고자는 조선에서는 이단 취급을 받으며 평가 절하된 사상가였다. 이를 율곡에 빗대서 비판하려고 한 것이 거꾸로 퇴계를 비판하게 된 것이다. 서인 측 사관은 이러한 실수를 기록에 남겨 남인들의 율곡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 같다.

이날 경연에 대한 내용은 유명천의 이기론 관련 이야기밖에는 없다. 유명천이 잘못 말한 이기론에 대해서 숙종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다른 신하들은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논의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확실한 것

은 남인 관료의 이기론에 대한 잘못된 발언과 서인 측 사관의 지적이다.

필자 생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연장에서는 누구도 잘못을 바로잡아주지 않아서 사관이 기록으로 남긴 것은 아닐까 추측한다. 사실 이기론의 문제는 왕권의 행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퇴계가 리와 기가 호발한다고 하였을 때, 리를 임금, 기를 신하로 대체하면 임금과 신하는 어느 쪽이든지 정치적 행위를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가 발하면 리가 그것을 탄다고 주장한 율곡은 그렇지 않다, 임금은 스스로 정치행위를 발동할 수 없고 신하들이 발동하는 행위에 임금은 편승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왕권을 최대한 인정하려는 남인과 왕권이라도 제한이 있다고 보는 서인의 정치적 차이가 바로 이 이기론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 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남인 관료들은 아무래도 민감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문제는 퇴계와 율곡과의 관계와도 유사하다. 율곡은 대학자 퇴계를 닮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상적인 노력을 많이 했다. 말하자면 유학 사상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퇴계 사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허점을 잘 파악했다. 반면에 퇴계는 이미 원숙한 유학자로 율곡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물론 율곡은 당시 퇴계가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사상을 제출한 것도 아니었다. 퇴계가 율곡 사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퇴계를 지지하는 남인들이 서인이 지지하는 율곡 사상을 잘 모른다는 문제로 연결되는 것 같다.

서인이라고 하는 당파의 집단적인 정체성은 동인이 있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이 반대 상황도 이야기할 수 있으나 동인은 처음에 퇴계와 남명 조식(曺植)이라고 하는 걸출한 두 유학자가 구심에 있었다. 반면에 서인은 아직 그런 유학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러한 유학자들을 만들어 낸 과정이 서인 세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동인의 주 세력이 남인으로 바뀐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남인과 대치하면서 서인 집단은 집단으로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상적인 모색을 하였다. 그러한 사상적인 모색의 원점은 당연하지만 율곡의 이기론과 심성론 등 율곡 철학이었다. 철학과 정치 그리고 제도를 어떻게 연결하여 서인의 정체성을 찾을 것인가, 자칫 왕권과 대립될 수 있는, 위험한 철학적 문제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 서인 정치가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서인 측 사관은 유명천의 이기론 발언에 민감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동인과 남인 집단은 임금이라는 최고 권력자를 추켜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퇴계의 이기론이 바로 그러한 왕권 중심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또 퇴계가 유학자로서 율곡의 대선배로 정통 유학의 중심을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인들 역시 자연히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어 상대적으로 서인들보다는 사상적인 긴장감이 느슨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유명천처럼 남인 관료들이 이기론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그러한 상황이 이날 유명천의 발언으로 드러난 것을 아닐까 생각해 본다.

9) 숙종 4년 8월 13일의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다.'는 기록은 율곡 사상의 기본 원칙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숙종은 여러 신하를 불러 이러저러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판윤 이원정이 관학에서 학생들이 자리에 앉는 순서에 대해서 물었다.

"관학(館學, 성균관과 사부학당)의 옛 제도는 방차(榜次, 과거에 급제한 차례 혹은 방목이

나 시험에 합격한 순서)를 따라 차례로 앉았습니다. 선조 때에 이이가 서치(序齒, 나이순)로 하도록 요청하였다가 행하지 못하였고, 갑진년(1664, 현종 5년)에 민정중이 대사성이 되어 처음으로 나이순으로 하는 방법을 행하였다가 조정에서 정한 것이 아니니 옛 방식을 회복함이 마땅할 것 같다고 하여, 과거 급제 서열로 앉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허적과 권대운은 역시 과거에 급제한 서열을 따름이 마땅하다고 말하여 임금이 윤허하였다. 민정중은 서인 측 노론 인사이다. 그가 율곡이 제안한 방식을 따라 나이 순서로 학생들을 앉는 순서를 정하였는데 남인 관료들이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이다. 율곡이 나이 순서를 선호한 것은 그것이 과거 합격 순서나 방목 순서 혹은 신분 서열보다 좀 더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오륜 중 하나인 '장유유서(長幼有序)', 즉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유교 도덕에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것이다.

8월 13일 이원정이 임금에게 건의한 내용 안에는 서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자리 앉는 순서 이면에는 서얼 차별의 문제도 있었다. 나중에 정조 시대에 들어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된다.

이덕무가 정조를 수행하고 성균관에 갔을 때의 일이다. 이날 정조는 성균관에서 유생들에게 시험을 봐서 실력이 뛰어난 자를 뽑을 예정이었다. 당시 성균관에서 서얼 학생들은 정실 자식들과 구별하여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정조: (성균관 유생들을 돌아보다가) 이 가운데 서얼이 있는가?
대사상 유당(柳戇): 없습니다.
정조: 이 중에 어찌 서얼 학생이 없는가? 서얼이라고 하여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성균관에서 서얼을 차별하여 남쪽 구석에 앉힌다는 말을 들었다. 주나라 때에는 평민의 자제 중에서 준수한 자도 모두 태학(太學)에 입학하여 왕공, 귀인의 자제들과 함께 공부하게 했다. 지체는 비록 낮으나 같은 양반인데, 어찌 차별하여 한쪽에 앉혀서 동렬에 끼지 못하게 하는가?
유당: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서얼을 동렬에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예경』에도 없는 일인데, 이러한 차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대사성이 유생들의 원망을 들을까 봐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마땅히 유생들을 타일러 그 같은 짓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적자와 서자를 구분하는 것은 집안의 제사 때에나 할 일이지, 성균관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균관은 나이를 중하게 여기는 곳이니 차별을 엄금하라.

임금이 성균관을 떠나자 성균관 유생들은 일제히 임금의 조치에 반대하고 시위를 했다. 대사성 유당이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는가 하고 야단을 치자 일제히 물러갔다. 유당은 시위를 하는 자들은 모조리 과거 시험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제야 유생들은 성균관으로 돌아왔다. 이후로도 며칠 동안 성균관 일대가 떠들썩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조가 이덕무에게 물었다.

정조: 성균관에서 나이순으로 앉는 것이 비로소 실행된다고 한다. 오랫동안 억울한 생각을 품고 있던 서얼 학생들의 마음이 풀렸는가? 대체 형편이 어떠한가?
이덕무: 제가 규장각에 출입하느라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어서 자세히 알지 못하나 서얼들에게 대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죄 없이 차별을 받았으나 이제 성세(盛世)를 만나 성균관에 앉는 순서가 하루아침에 시정되어 기쁘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면 '비로소 사람대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답니다. 또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으므로 임금께서 걱정하여 이러한 선정을 베푸셨으니, 하늘이 감동하여 반드시 단비를 내릴 것이다.'라면서 모두 기뻐했습니다. 서치법(序齒法, 나이순으로 하는 법)을 하교하신 뒤 이틀 만에 단비가 내리다가 큰 비가 오자, 서로 축하하며 '이것은 서치우(序齒雨)다.'라고 하였다니, 이를 미루어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정조: 이들의 기뻐함이 이같이 크단 말인가?
이덕무: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감탄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 중에 이런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다. 옛사람들도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집에서 제사를 지내어 선대에 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말이 있으니, 글을 지어 제사 지내고 이를 고할 만하다.'고 하니, 지극히 감격하였음을 여기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정조: 나이순으로 앉는 것은 선왕(영조)께서 엄히 명하신 것인데, 즉시 고치지 않으니 진실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차후로 다시 바뀌지는 않겠는가?
이덕무: 도리에 합당한 일이므로 아마 이 제도가 무너질 염려는 없을 듯합니다.
정조: 내가 글로 선포하지 않은 것은 자칫 일이 너무 커질까 하여 대사성을 단단히 타일러 행하게 한 것이다. 그대도 소견이 있으면 말해 보라.
이덕무: 서얼이 사람의 서열에 끼지 못하는 것은 천하에 가장 원통한 일입니다.
정조: 항상 이들을 마음속으로 측은하게 여긴 지 오래다. 그러나 청환현직(淸宦顯職, 청직과 높은 직위)까지 소통시켜서 구애받는 바가 없게 하는 것은 제도를 개혁하는 데 관계되는 것이므로 쉽게 조치할 수가 없었다. 선조(영조)께서 서얼에게 대직(臺職)을 허락하신 것은 참으로 성덕에서 나온 일인데, 세상에서는 그들을 청환현직으로 대우하지 않고 가(假)자를 붙여서 가장령(假掌令), 가지평(假持平)이라고 부르니 습속이 이렇게 굳어져 고치기가 어렵게 되었다.